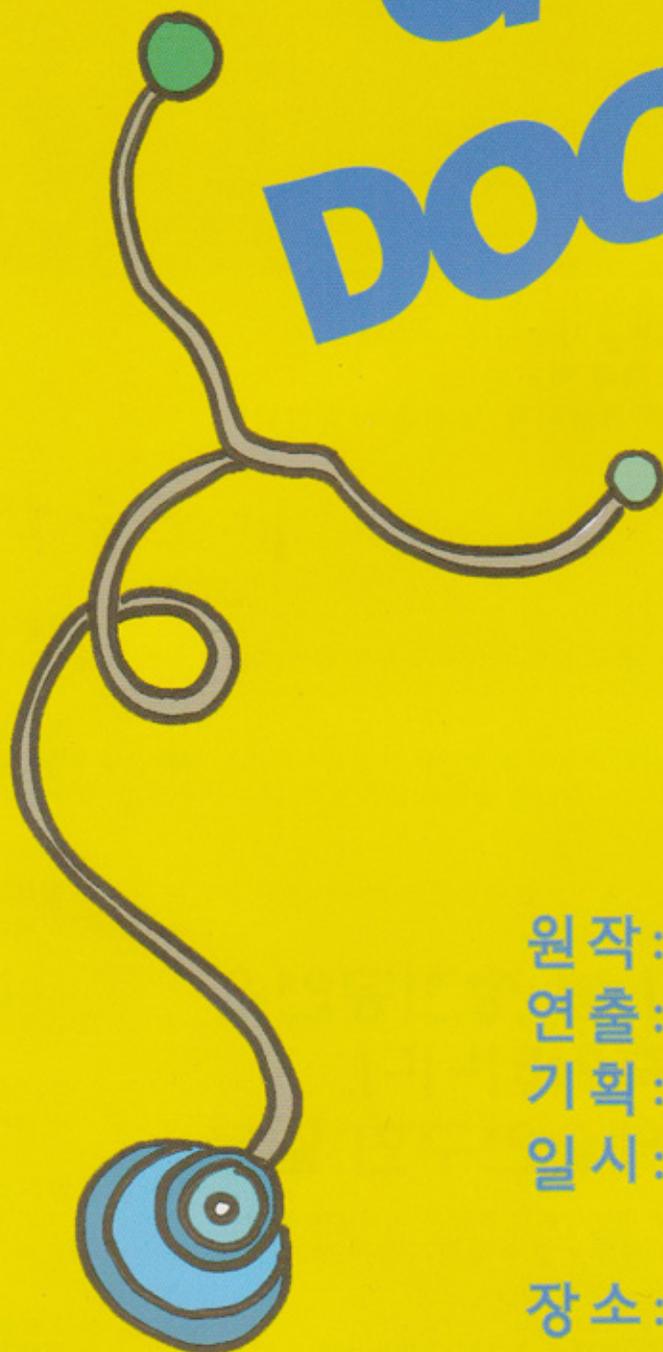


승대극회 제 73회 봄 정기공연

# GOOD DOCTOR



원작: 닐 싸이먼

연출: 한재진

기획: 신영준

일시: 2007년 5/31, 6/1(7시)

6/2 (2시, 6시)

장소: 승실대학교 법학관 1층

# 극회장 올리는 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송대극회 제 73회 봄 정기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봄이 찾아왔고 저희 또한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관객과 호흡하며 또 하나의 막을 올리기 위해..  
 우리들의 열정과 젊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좌절과 고뇌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이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배우들의 숨결을 느끼고 함께 호흡해 보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이번 공연을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습에 매진한 캐스트와  
 자랑스러운 후배 재진이,  
 뒤에서 굿은일을 도맡아 준 영준이,  
 그리고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에 미친  
 모든 극회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송대극회 73회 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송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일동-**

# 연출의 변



연출 한재진(성악04)

"관객들이 하도 웃어대서  
 진이 빠지게 만드는 연극, 영화가 있다.  
 물론 관객을 포복절도 하도록 만드는게  
 배우들의 꿈이기는 하다  
 하지만 나는 웃음을 분산시키는 편이  
 낫다고 여긴다.  
 몇 분동안 극장을 사로잡는 폭소보다는  
 두세번에 걸친 거리낌 없는 웃음이 훨씬 낫다"  
 -찰리채플린-

극회실에서 네번째 맞는 봄입니다.  
 올봄엔 유달리 혼신의 힘을 다해 내 모든걸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연극이라는것을 알게해준 이곳에 말입니다.  
 처음 해보는 연극이 어려웠을텐데 매일 같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함께 달려온 캐스트들과,  
 맨손으로 바위치기를 해야했던 상황에서  
 여기저기 발로 뛰어주신 극회식구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는것 보단 잘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그래도 대학극은 열심히가 장땡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난한 연극을 하며 젊음을 태우는  
 멋진 대학생들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 작품소개

**프롤로그**  
 혼자서 글을 쓰고 있던 작가는 관객과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를 스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재채기**  
 말단공무원인 이반 체르디아코프가 자신의 상사에게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더 끔찍한 과정을 겪는다.

**치과의사**  
 치과를 찾아온 이빨이 아픈 사제에게 경험이 없는 조수가 치료를 해준다면 달려들어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데...

**겁탈**  
 유부녀 꼬시기에 선수인 피터 세미나요치가 백전백승의 자기 성공비결을 전수한다.

**오디션**  
 여배우가 되고싶지만 아직 모든게 서투르기만 한 니나의 첫 오디션 이야기

**의지할곳 없는 신세**  
 조그만 소리에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의 지배인에게 어느날 한 노파가 찾아온다.  
 다짜고짜 사정을 말하는 노파, 이를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지배인은 노파의 횡포(?)에 점점 더 괴로워만진다.

**생일선물**  
 열아홉 살을 맞은 아들에게 진보적이 아버지의 소킹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순수하고 아직 어리기만 한 아들을 설득 하는데는 성공하지만.....

**에필로그**  
 작가의 진심어린 속마음과 마지막 인사.

# CAST



김승태 (정통04) - 조수, 목소리

꿈임없이 갈망하고  
꿈임없이 부딪친다.  
악을 쓰며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작은 미소가 보인다.  
괴롭다고 하지마라  
진실함을 찾기위한 몸부림이다.  
Reality...



한재진 (성악04) - 니나

내가 정말 못살아...!!



김태현 05- 이반 체르디아코프

나는 지금 무성한 숲에 둘러싸여  
오지를 탐험하고 있다.  
이 길을 헤쳐나가면 무엇이 보일까?  
낭떠러지 일까? 광활한 대지일까?  
이 길의 끝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기쁨일까..? 절망일까..?  
나는 지금 이 미지의 길을 걷고있다.



박용혁 (불문06)-작가, 피터

비극도 희극도 아닌 삶 속에서  
나는 그저 속 시원히 웃을수도,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존재지만,  
작가와 피터로 사는 동안 나는  
그저 빛나는 존재였다.



이보라 (법학06) -이레나

한풀이...



김진욱 (사학 07)  
브라실로프, 닉, 포차킨

먹지, 백지, 혼란, 그리고 연극...  
전 지금 행복합니다.



정다운 (자율전공 07)  
이반부인, 창녀

갈증이 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더 나아지고픈 욕망의 갈증  
부족함..  
내 타는 목마름을 적실것을  
갈망합니다.



김병수 (법학 07)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도 각도는 아무래도 너무 싫어요  
그리고 집에 일찍 가고싶어요



김명희(국통07)-부인,장관아내

raise your standard!  
그리고...  
전 저주가 싫어요..ㅠ\_ㅠ



박인수 (국통 07)  
사제, 아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  
라면에 밥 말아먹고 싶어요

# STAFF



조명 박지승(평교 03)



음향 김봉성(경상 05)



무대 감독 김구식(전기 03)



음악 정현승(정통 06)



무대장치 이현우(정통 07)



무대장치 이현중(정통 07)



무대미술 이고운(법학 04)



스폰 윤대현(전기 03)



무대미술 이경윤(화공 05)



분장 박은지(철학 06)



스폰 박한경(화학 06)



홍보 김병현(정통 04)



의상 김진영(법학 06)



의상 민지은(법학 06)



진행 이보라 (전기 07)



진행 정현정(기공 07)

## 기획의 변



기획 - 신영준 (언론 03)

군대 다녀 온 후 처음 참여한 작품에서 기획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공연날이네요.  
초반 주변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부족한 기획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힘든 것은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배가 된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만큼 공연을 같이 준비한 후배들이 사랑스럽고 공연에 애착심이 생깁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관객석의 전등이 켜지면 끝입니다.  
박수를 받을 수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굿닥터를 사랑합니다.  
저는 후배님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송대극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기획입니다.

## 신입생 환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3/10.11.12	악마와 톰-Aning 작		김홍수
2	1976/10/29.30.31	보석과 연인-이경백 작		김득남
3	1977/3/16.17.18	졸남-윤대성 작	전경호	안홍순
4	1981/3/30.31	셋-이경백 작	한길	정재호
5	1982/3/24.25	ARIA DA CAPO -E.St.V.Milly 작	이영환	오세환
6	1983/4/16	영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이용섭
7	1984/3/8.9	블랙 코미디 -피터 셰퍼 작	전희식	홍여석
8	1985/7/20	개인의 소공간 -N.Horald 작	차세환	김인보
9	1986/3/17.18.19	ARIA DA CAPO -E.St.V.Milly 작	이영민	하승민
10	1987/3/12.13.14	인형의 집-헨리 밌셔 작	이결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3/12.13.14	떠러진 손-J.P.사르트르 작	채명연	박경근
12	1988/3/24.25.26	불가불가-이영환 작	권승병	황금실

13	1989/3/23.24.25	혹일수녀를 위한 집안편 -A.Camus 작	홍역태	박경근
14	1990/3/8.9.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w B 작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배로라
15	1991/3/7.8.9	노르 노르 -Julius Kiefer 작	정현우	이병준
16	1992/3/28.29.30	꿈 먹고 말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철	양현준
17	1993/3/11.12.13	매두사 -George Kaiser 작	손정호	박원상
18	1994/3/10.11.12	이런왕자 -생략권재희 작	이명성	홍효환
19	1995/3/9.10.11	불날-이경백 작	이명환	정효용
20	1996/3/30.31/6.1	술이라 백고등아 -성준기 작	정재훈	김영근
21	1997/3/29.30.31	로물루스대계 -구.부림아트 작	박정국	정효용
22	1998/6/5.6.7	결혼/아폴로 -이경백 작	김정호 안병진	류민주
23	1999/6/3.4.5	자매/라투아니아	홍신태	권노리
24	2000/11/16.17.18	드레적 도둑 -Dario Fo 작	김명진	김정호
25	2002/3/30.31/6.1	노부인의 방목 -구.부림아트 작	김이경	서정우
26	2003/3/29.30.31	태시트리벨-정현 작	김공백	한주영

#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정소연극 "조선연극사물려의열로"		
	1923년 7/7,21	원형극 "조선연극사물려의열로" "심연호" 연극협회 주최		
	1925년 7/28,29	"소년연극" 고학성학회 주최		
1	1965년 11/	"개공요리 동아오라" 황영석 작	이반	최길호
2	1968년 10/28	"Our Town" Thornton Wilder 작		이태주
3	1969년 10/10	"외가동" E. 오오네스코 작		고봉연
4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연
5	1970년 5/13	"꽃들의 생활" John Millington Synge 작		이연재
6	1970년 10/28,29	"승부의 결과" Samuel Barclay Beckett 작		정영기
7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보통의 상화" 윤교배 작 "일베아득에 대하여" 안동채운 작 "황금단기" 푸라우르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정종화 주정서 이연재 유근배 이연재
8	1971년 11/4,5,11	"거적벽의 그림자" 산오카에시 작		이연재
9	1972년 5/25,26,27	"생물피리" H. 핀터 작		이연재
10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의 결혼" F. 윌리엄스 작		고봉연
11	1973년 10/25,26,27	"밤" H. 핀터 작 "가도"(소극장) F. 아라발 작	최득남	이연재
12	1974년 5/25,26,30	"침묵의 사랑" A. 가우작 작		정종화
13	1975년 6/9,10,12,13	"사슴의 사랑" "드스트레프스카라는 이름의 거북이"	최종수	안홍순
14	1975년 10/29,30,31	"비밀과 방화범" Max Frish 작	최기남	안홍순
15	1976년 6/1,2,3	"외투" 장 폴루트 반 아델라 작	최기남	최득남
16	1976년 10/25,26,27,28	"밤" 장 폴루트 반 아델라 작		정영기
17	1977년 6/13,14,17,18	"EQUUS" 피터 셰퍼 작	백정식	정영기
18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 셰퍼 작	백정식	정영기
19	1978년 6/3,6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백정식	정영기
20	1978년 10/24	"EQUUS" 피터 셰퍼 작 (연극연극제철거)	최승기	정영기
21	1979년 6/18,19	"일장299" 정영기 작	정재호	이복국
22	1979년 9/29,10/2	"초산" 오해석 작	이정일	황정순
23	1980년 11/3,6	"아니, 이 생애는 나에게 누구의 것인가?" "비하인드 클라크" 작	이세명	백영원
24	1981년 6/12,13	"노부인의 방화" F. 윌리엄스 작	이종국	황정순
25	1981년 11/12,13,14	"별곡" 정병준 작	최석근	황정순
26	1982년 5/12,13	"브레콜라" A. 가우작 작	윤태웅	최숙
27	1982년 10/7,8	"샌도우 박스" M. 크라스트로퍼 작	최희식	황정순
28	1983년 6/20,21	"미시시피의 결혼" F. 윌리엄스 작	최희식	정영기
29	1983년 10/7,8	"트러버" John Bowen 작	이원우	오정연
30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 A. Miller 작	이종국 이세명	오세환
31	1984년 10/11,12,13	"번진소" John Stoltzenberg 작	최세훈	이복성
32	1985년 5/9,10,11	"별곡" John Stoltzenberg 작	정상현	이복성
33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러름의 신부님" 조반니 파르스키 작	하승민	송기병

# CAST DIARY

## 4월 23일

오늘 연습 못했다. 었드려 뽀치기는 매우 매운 맛이였다.  
내일 연습은 즐겁게~~♪

## 4월 28일

경윤이 언니의 '자기역할에 욕심을 내라' 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진짜 미친X이 되어가야 하나? 원래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ㅋㅋ..  
6월 2일까지 진짜 의지할 곳 없는 신세의 여자로 살아보자!! Fighting!!!!!!

## 5월 1일

My favorite Rainy day. 5월의 첫날부터 비가 내린다.  
첫 수업은 12시였지만 아침9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밖에 비오는 소리.. 식은 커피.. 길 위로 스쳐가는 얼굴.. 모조리 전 메모를 합니다.  
별수없죠. 전 작가니까요. 킁킁..

## 5월 2일

대본을 독파하자.  
좋아하는 연예인 프로필, 기사는 다 읽고 그 자리에서 외우면서  
내가 절실하게 하고 싶었던 연극 대본은 왜 이리 못.. 아니 안 외울까..  
'하고 싶다' 고 말만 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력이 없는 것 같다.  
'인생은 거의 연극' 이라고 매일 생각했었는데, 연극은 인생일까? 미쳐보자.

## 5월 3일

어제 지각해서 CAST들이 모두 벌을 받았다. 너무 미안하고..  
옛날에는 연출님한테 개인별, 팀별로 연기를 봐 주시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많이 많이 연기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 5월 5일

먼지를 마시며 무대를 만들었다.

## 5월 7일

오늘 너무 힘들었다. 연극은 하나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 나가자구요!  
연극은 관객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 5월 16일

지금부터 제대로 놀아보자. 공연 끝나는 날 환하게 웃자.  
미친듯이 연습했다고, 즐거웠다고 말할래. 꼭!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4	1986년 6/4,5,6	"EQUUS" 피터 셰퍼 작		이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12,13	"크리스마스" E. 오오네스코 작		안상근 송기병
36	1987년 6/3,4,5	"많은 여자들의 꿈" by W. Shakespeare 작		권혁진 이근석
37	1987년 9/10,11,12	"오해" A. 가우작 작		오정연 박경진
38	1988년 6/2,3,4	"세 번은 잘못 세 번은 잘못" 이재현 작		이충훈 오정연
39	1988년 10/6,7,8	"안녕하세요? by Dario Fo 작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26,27	"노래" 윤교배 작		최승현 안성우
41	1989년 10/10,17,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작		오정연 이반
42	1990년 5/24,25,26	"안티고네" 장 유수작 작		권태수 이근석
43	1990년 8/30,31,9/1	"황시연대기" 황석영 작		최승현 이영민
44	1991년 9/3,6,7	"생물피리" H. 핀터 작		남재우 최승현
45	1991년 9/3,6,7	"이상" 이재현 작		이충훈 권혁진
46	1992년 3/19,20,21	"우린 나팔을 불었다" 김상환 작		정영기 홍은영
47	1992년 9/17,18,19	"금관의 여수" 김지하 작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21,22	"세월조명의 죽음" by A. Miller 작		황대식 박원상
49	1993년 10/21,22,23	"해시 해시" 김상수 작		소정호 박원상
50	1994년 5/26,27,28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정식용 소정호
51	1994년 9/29,30,10/1	"안티고네" 소폰클로스 작		소정호 박원상
52	1995년 5/25,26,27	"상속의 여가" 김종민 작		이승욱 부성환
53	1995년 11/26,27,28	"나의 마음 오해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작		정영기 남재우
54	1996년 3/7,8,9	"가상" 정영기 작		이석훈 손민하
55	1996년 9/3,6,7	"목수봉에 서면 누구를 보았다" 최희식 윌리엄스 작		조태화 이충훈
56	1997년 3/13,14,15	"우리의 음악" 윤태웅 작		신아연 서수경
100	1997년 주년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작		이세명 정종화
57	1998년 3/18,19,20	"살인 놀이" by E. 오오네스코 작		조태화 원내리
58	1998년 11/26,27,28	"말고 가의 죽어" 윤태웅 작		윤정환 조태화
59	1999년 3/11,12,13	"사랑은 거대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정일 작		이원재 이경화
60	1999년 9/2,3,4	"사랑 놀이" 이정일 작		이정일 이정일
61	2000년 3/4,5,6	"아름다운 시인" 정진 작		이원재 이경화
62	2000년 8/31,9/1,2	"스나기" 황순원 작		정태하 박정국
63	2001년 3/29,30,31	"연말에 대한 예의" 서정호 작		이원재 서정호
64	2001년 9/6,7,8	"배라보다 멀어간다" 정희진 작		서정우 정희진
65	2002년 3/13,14,15	"젊은 비포스40의 슬픔" 최희식 작		정영기 정희진
66	2003년 3/6,7,8	"목수봉에 서면 누구를 보았다" 김태수 작		이만나 윤정환
67	2003년 9/4,5,6	"고도를 기다리며 보낸" 사무엘 베케트 작		최성민 최연경
68	2004년 6/3,4,5	"황시" 아리스토텔레스 작		최성민 장혜정
69	2005년 3/2,3,4	"다들 가자" 이재현 작		최성민 이복재
70	2005년 10/6,7,8	"허배구사" 홍가작 작		정영기 이재진
71	2006년 6/12,13	"정공예환" 박근영 작		이교훈 이복재
72	2006년 9/21,22,23	"사랑에 관한 열가지 소문" 위성신 작		정영기 최승태
73	2007년 5월31, 6월 1,2	"굿 닥터" 닐 사이먼 작		신영준 이재진

5월 19일

To. 올랭피아  
 년 왜 이렇게 난감하니?  
 24시간 너에게 집중하는게 쉽지 않구나.  
 정말 몰입하기 힘든, 올랭피아, 너!

5월 21일

긴 연습, 모든 내용을 돌렸다.  
 왜 이리 아쉽지. 지금 이 아쉬움이..  
 연극이 끝나고 이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성년의 날의 선배들과 동기의 축하가 기분이 좋아진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 좀 더 어른스러운 행동,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제 어른이다. 안녕 어른.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5월 23일

밝음이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잊지말자.

5월 24일

철야연습. 새로운 느낌의 연습이다.

## 도와주신 고마운 님

김영조님(컴공), 유쾌한 노래방, 본죽, 이모네(강남시장), 세연크레페,  
 흥부네 숯불갈비, 풍경, 마초 숯불갈비, 바다횃집, 프라임, 고기마을 찜닭나라,  
 황토장군, 흔들리는 보리밭, 닭쌈.com, 이보네(구정문), 평화 숯불갈비, 흥부네,  
 동아리 당구장, 숯가마, EBS노래방, GURS, 파스타리오, 삼번가우동, 브레드하우스,  
 JM BAR, 송실마트, 김가네, 일보스코, 노아노아, 조이트랩, 춘천 정통닭갈비,  
 캘리포니아 롤하우스, 송실 먹거리, 이테리시장, 이오땡, 치킨매니아&호프,  
 청운 숯불갈비, 이자카야, 엄마손, 연래춘, 썬씨티, 피자토비, 추억과 김밥, 명동분식,  
 파라다이스, 이모네(후문), 꼬레빙, 닭갈비생각, 현대문화사, 이삭토스트, 송실장,  
 송실 노래방, 김밥이 맛있는 집, 래미안 빵, Free 당구장.....

네일 크로버	송전 복사	로얄 당구장	그린캠프 당구장	한성각
대림 스넥	동학	인터뷰	대나무골	화룻터
송실 동아리	가야 화궁터	수정 할인마트	윤가네	시가 있는 풍경
황새골	대양 참치	스테이키편	상84	고향 삼계탕

상도 소곱창	아이스쿨 안경, 콘택트	큐피드	블루힐	다쓰베
운두령 감자탕	퓨전포차 Mr.Kim	양자강	손칼국수	가야성

항상 고객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겠습니다.

**베토벤 안경원**

베토벤 안경원 ● 1번 ● 2번 출구  
 4번 출구 ● 3번 출구

**Zone&Zone PC방**

3번 출구 ● 송실대학교 우체국  
 4번 출구 ● Zone&Zone PC방

마늘과 치킨의 절묘한 조화

**갈릭치킨 & 호프**

garlic chicken & hof

송실대점 : 823-9233      송실대역  
 www.갈릭치킨.com      ②번출구앞

